

Land of Midnight Sun

김명원(68)

NORWAY

피오르와 빙하의 청정지역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마실 물을 찾았더니 화장실에 가서 마시란다. 농담이 너무 심하구나 하며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고 있는데 금발의 여직원이 데스크를 돌아 나와 화장실로 가더니 수도꼭지에서 물 한 컵을 받아서 친절히 가져다 준다.

그제야 어제 호텔로 오는 도중 가이드가 한 말이 생각 났다.

여기서는 병 물을 마실 필요가 없이 수도물을 그냥 마신다고 했었다.

개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어느 친지가 미국에서 산골 개울 물이 하도 맑아서 손으로 떠서 마셨다가 Giardiasis 라는 기생충 병에 걸려 한동안 고생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미국에선 아무리 맑아 보이는 냇물도 떠 마실 엄두를 못 냈었다.

이곳은 정말로 지구의 청정지역이다.

물 맛도 좋고 샤워를 하면 살갓이 매끈 매끈하다

깎아지른 듯한 피오르에서는 여기 저기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폭포들은 운무를 일으키며

떨어져서는 어디론가 땅속으로 사라졌다가 큰 시냇물이 되어 바닷 물로 흘러 들어갔다.

피오르의 허리까지 차 오른 깊은 물은 잔 물결도 없이 도도히 흘렀다

거울 같은 물에 비친 포구의 마을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Balestrand 호텔의 식당에서 4 Course Dinner 를 먹었다.

두 층으로 된 투명한 유리 그릇에 담아 내어온 전채는 아마도 Chef 의 최신작인 듯 했다.

아이스크림 컵 같은 바침 그릇에는 미역이 깔린 뭍은 죽이 있었고 그 위의 볼에는 푸딩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미역을 쓰는 법은 셰프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볼에 담긴 푸딩은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맛이 그야말로 “마, 직이준다.”였다.

백 포도주 Gruner Vetliner 는 첫 모금 맛이 아주 깊으면서도 뒤 맛이 비단 걸 처럼 섬세한 오스트리아 산 이었다.

호텔은 꽤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넓은 갤러리에는 아마도 20 세기 초의 이 고장 화가들의 작품인 듯 한 꽤 많은 원화들과 빛 바랜 흑백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호텔을 한 바퀴 둘러 보고 있자니 어디선지 피아노 소리가 들려 온다.

피아니스트는 칼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근래에 이곳 고향으로 돌아 왔다는 초로(初老)의 남자였다.

“If you go away”, “Times go by”,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

허술한 옷차림에 낡은 피아노에서 흘러 나오는 Oldies but Goodies....

뿡 간 분위기에 주는 대로 받아 마신 술로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 기분이 풀릴 대로 풀렸다.

달콤한 우수에 젖어들게 하는 지난 날의 명곡들...

젊은 날들의 환영이 어렴풋 손에 잡힐 듯...

밤이 늦어 일행들은 다 방으로 올라 갔는데 나 혼자만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더 있었다.

밖을 내어다 보니 아직도 대낮처럼 흰하다.

백야(白夜)!

여기가 바로 The Land of Midnight Sun 이다.

“SORRY ! IT’S IN MY BLOOD...”

기차 타고 이동하는 날.

기차를 한번 갈아 타게 되어 있는데 갈아 탈 기차에는 좌석 배정이 없었다.

시골 역의 대합실은 비를 피하려는 각종 인종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밖에서 비 피할 곳을 찾았다.

어짜피 짹짹 올라 타야 앉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꺼면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낫다.

도착한 기차는 만원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릴지는 모르나 어물거리다가는 서서 가게 생겼다.

기차가 서자 웬일인지 옆의 승강구로만 사람들이 내리고 내 앞에 와

정지한 승강구로는 문도 열리지 않은 채 내리는 사람이 없다.

문을 억지로 밀어 제치고 앞장 서서 돌격 대원 처럼 뛰어 들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 가려는데 웬 백인 남자가 막아 서더니 알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무어라고 떠든다. 가만히 들어 보니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다.

액센트가 심했지만 분명히 영어였다.

"내릴 사람들 부터 내리고 타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출구를 막으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느냐" 며 우리를 질타하는 소리였다.

"앗빨사" 마빡을 된통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어디서나 "빨리, 빨리"를 외치며 설쳐대는 동포들을 볼 때마다 낮 뜨거워 하던 행동을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어제만 해도 조각 공원에서 저 먼저 사진 찍자고 뻘뻘 쳐다보며 밀치고 들어 오는 우리 동포들을 보며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 자신을 저주 했었다.

그러던 내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지금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미쳤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했던 6.25 피란 통의 기차간 경험이 나의 무의식 속에 각인 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무리 아닌 척 해도 그 "빨리, 빨리"의 DNA 는 나의 핏 속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강을 건너 준 개구리의 목에 독침을 꽂고

“안 그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It’s in my blood.” 했다던 이숲 우화의 전갈 처럼.

선진국에서 모진 일 한번 당하지 않고 살아 온 지도 반 세기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느닷없이 돌출된 나의 망발이라니.

“Oops ! You’re right. I’m sorry, You’re right...”

걸리적거리는 짐 보따리를 끌고 황급히 돌아 내렸다.

사람들이 그제야 띄워 준 통로로 줄줄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려 오는 사람들을 멍하니 올려다 보고만 있다가 그들의 짐을 거들어 주기 시작했다.

어디서 기운이 났는지 내 짐 보다도 더 큰 짐 보따리들을 번쩍 번쩍 들어서 받아 내려 주었다.

"Thank you , young man !”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노신사.

“Young man”이라니.

비 때문에 뒤집어 쓴 모자에 가려 학발(鶴髮)이 안 보였던 모양이다.

수치심에 모자를 너무 폭 눌러 썼나? 끌려 나온 연쇄 살인범 처럼?

그 뒤로 내리는 노부인의 짐도, 중국인 같아 보이는 젊은 여인의 짐도 덩싹 덩싹 받아 내려 주었다.

신들린 듯이, 연방, 속죄의 눈물을 삼키며.

FISH SOUP

Alesund 는 11 개의 섬으로 구성된 노르웨이의 항구도시.

디너 예약이 되어있는 식당은 5 Star 라기에 넥타이 까지 매고 갔다.

주인 여자가 손님들을 다루는 솜씨도 5 Star 급이어서 그녀의 감독하에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Server 들이 우리 일행 열두 명을 기분 좋게 모셨다.

포도주는 Les Gres 라고 하는 Viognier 와 Chardonay 의 혼합주였다.

어제 마신 것 보다 심플하면서 산뜻했다.

대가리를 그대로 둔 채 몸통과 꼬리의 껍질만 벗겨낸 새우와 조개류, 대구 등이 든 Creamy Fish Soup 이 일품이었다.

“The best fish soup in Norway”라고 칭찬 해 주었더니 주인 여자가

" In the whole world!"라고 고쳐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 No, the best fish soup in the whole world is the Korean fish soup!" 이라고

이건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넘겼다.

하기야 Fish Soup 으로 말 할라치면 우리의 동태찌게, 대구 매운탕,

해물탕등을 당할 자가 또 있을까.

전에 살던 버팔로에 "Il Fiorentino" 라는 아담한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었다.

밀란에서도 이름을 날리던 남편이 Chef 였고 그의 부인이 웨이트레스로 일했다.

예약한 시간에 가면 반듯하게 쪽진 머리를 한 젊은 부인이 정문에 서서 두 손을 단정하게 앞으로 모으고 깎듯이 인사를하며 우리를 맞이 하곤 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중간 쯤에는 반드시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서투른 영어로 음식 맛이 어떨냐고 물었다.
바쁠텐데 얼른 들어가 보라고 하면 " Oh, yes. Busy, busy. Confusione ! ”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하나 밖에 없는 한국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무얼 먹나 보았더니 시벨건 도미 매운탕이었다.
자기 식당이 쉬는 날이면 꼭 생선 매운탕을 먹으러 그리로 온다며 "The best fish soup in the whole world" 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었다.
도미든 대구든 각 생선의 독특한 맛을 살리면서도 매콤하게 끓이는 우리의 생선 찌개와 비린내를 제거하려다가 생선 특유의 맛까지 압도해 버리는 걸쭉한 Creamy Fish Soup 과는 애당초 짝이 안 되는 거다.

ICELAND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가의 풍경이 삭막하기 그지 없다.
한참 동안을 작은 수풀도 나무도 볼 수가 없이 검푸르죽죽했다.
처음엔 툰드라 지대의 동토 (凍土)라서 초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로구나 했다.
알고 보니 부드러운 토양이라곤 없는 시꺼먼 화산암 벌판을 누룻 푸룻한 이끼가 덮고 있는 거였다.
땅 넓이는 남한보다 약간 큰데 인구는 35 만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
참으로 작은 나라다.
20 여년 전에 함께 일하던 아이슬랜드 출신 마취과 의사를 이름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고 재미 삼아 물었더니 가이드가 금방 찾아서 통화를 하게 해 준다. 지금 골프를 치고 있다며 게임을 끝내고 만나잔다.
이 나라의 수도인 Reykjavik(레이키야비크)의 전(前) 시장(市長)은 푸로 코메디언이었다.
당선이 되면 공공 수영장의 타월을 공짜로 쓰게 해 주겠다는등 여러가지로 웃기는 공약을 해 놓고는 "물론 당선이 되면 공약 같은 건 다 까먹을 것" 이라고 정치가들을 비꼬았는데 덜컥 당선이 되었다.
당선이 되자 자기는 정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고는 그 대신 전문분야의 보좌관들과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타월 사용비를 탕감하기는 커녕 두배로 올리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등 의 과감한 긴축 경제 정책으로 호응을 받았다.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했더니 " Politics is poison "이라며 사양했다.
전체 인구의 거진 절반이 수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시장에 당선 되었을 정도면 능히 대통령에도 당선 될 수가 있었는데도.

바로 큰 길가에 위치한 시장 공관에는 담장도 경비원도 없고 시장도 차에서 내려 그냥 짐부실로 걸어 들어 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도 감옥은 있는데 주로 탈세범들이다.
감옥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불이 담 밖으로 넘어가면 죄수가 담을 타고 넘어와 불을 집어 가지고 돌아 간단다.



화산 섬이라 Geothermal Energy 와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가 넘친다.
길거리 바닥에도 온돌처럼 열선이 깔려있다.
버스 투어로 Natural Wonder 를 몇 군데 가 보았지만 모두 규모가 약소 했다.
투어 가이드가 Gullfoss 라는 폭포를 보여주고 나서 의기 양양하게
나이아가라 보다 낫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시큰둥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Geyser 도 가 보았지만 Yellow Stone 에 비하면 소꿉장난이었다.
위도 66도의 추운 땅을 뚫고 뜨거울 물이 샘 솟고 김을 뿜어 내는 게
신기했지만 신흥식의 말대로 그저 “김 새는 땅” 일 뿐이었다.
같은 이름의 영화 주인공 Brook Shields 가 연상이 되어 그런지 이름만
들어도 색시한 “Blue Lagoon”에 기대를 걸고 온천 욕을 하러 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였다.
여행 기간중 하도 비가 자주 와서 Midnight Sun 은 커녕 Mid-Day 에도
해를 본 날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중국 관광객이 이미 수백명 들어가서 목은 때를 벗겼을 꺼” 라고 누군가가 이미 초를 친 마당에 막상 들어가 보니 물도 뜨뜨 미지근 하다.

온천이라면 유황 냄새가 확 풍기고 들어가 앉자마자 뱃속 저 깊은 데에서 “어~! 씨원하다“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뜨끈뜨끈 해야 되는 건데 말이다.

설마 땀 국물이야 아니겠지만 물 빛갈도 Blue 는 커녕 뿌연 우유빛이라 물에 담긴 손이 보이질 않는다.

실망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 실리콘 팩이니 앨지 팩(Algae Pack)이니를 발라서 하나같이 광대같은 얼굴에 맥주도 한 잔 씩 걸쳤겠다 금새 기분이 확 풀려 버렸다.

“홍광신이 덕분에 우리가 호강한다. 대학 들어 올 때 너희들 하고 이렇게 비 오는데 별거벗고 놀게 될 줄을 꿈이나 꾸었겠냐? 딴 데도 아니고 이런 황량한 섬에서 ?”

무림없이 낄낄거리는 중에 가슴 뭉클해지는 감회가 솟는다.

삐에로의 분장에 내비치는 해맑은 소년의 얼굴들.

잊었던 어제와 오늘이 만나는 순간이다.

물이 더 더워 졌나?

God bless us. 우리 모두 100 살 까지 살자, 이대로.

아이슬랜드 투어는 홍광신이 주선했고 노르웨이는 출 초이(Choi Chul)가, 식당 예약과 포도주 선택은 이건일이 맡아서 해주었다.

믿음직한 일꾼 들이 나서서 빈틈없이 긴 여정을 꾸려나가

주었고 정정하신 마나님네들이 어미 닭처럼 앞뒤를 보살펴 주는 바람에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졸졸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되는 세상 편한 여행이었다.

한식 금단 증상을 다스리기 위한 고추장 ,라면 등은 신흥식 부인이 자원 봉사했다. 고추장 ,라면 뿐만이 아니었다. 곰탕, 월남 국수, 김, 육포, 군만두, 빈대떡, 소고기완자, 칼국수, 멸치볶음, 오징어채 볶음, 단무지, 누룽지 등등 찾는 대로 어디서인지 무진장 나왔다.

손도 크고 마음도 큰 사람이다.

여행이 끝날 때 까지도 다 먹어 치워 드리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